

<창세가>에 나타난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과 '미륵-석가' 대결의 의미 *

심재숙 **

차 례

1. 머리말
2.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
 - 1) 미륵과 석가의 내기에 숨겨진 미륵의 창조여신적 특질
 - 2) 설문대할망과의 대비를 통해 본 거인창조여신으로서의 미륵
3. '미륵-석가' 대결의 의미
4. 맺음말

■ 국문 요약

이 글은 한국 창세신화에 나타난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을 살펴보고, 미륵과 석가의 대결에 담겨 있는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신이 창조의 주체로서 인간세계의 형성과 인간의 창조를 책임지는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창조여신이 없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이 글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신 미륵이 남신일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의심하고, 창조여신으로서의 미륵을 재발견해보고자 했다.

우선 '인간세상 및 인간 창조' 신화소, '미륵-석가 경쟁' 신화소,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736)

** 고려대학교

정' 신화소 등을 분석하여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을 확인했다.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내기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미륵에 내재된 창조여신으로서의 자질을 추출하고, 거인창조여신 설문대할망과의 비교를 통해 거인형상을 하고 천지를 분리하는 거인창조여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 '사라지는 창조여신 대 부상하는 남신의 대결'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에 주목하여, 석가의 일월조정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다. 일월조정은 석가의 창조신적 권위와 석가시대의 완전한 성립을 알리는 표지로서 기능한다. 일월조정을 위해 떠난 서천국으로의 노정에서 석가는 사슴의 사체화생을 통해 자신의 창세신적 권위를 입증하고, 일월조정에 성공함으로써 새 시대의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창조여신 미륵이 물러났어도 창조여신의 원리를 지향하고 원망하는 무리가 있었다. 창조여신 미륵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신에서 남신으로 창세의 주체가 이동했으나, 여신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신과 공존하면서 부계사회 남신중심의 시대를 기다린 것이다.

주제어 : 창세신화, 창조여신, 미륵, 석가, 인세차지경쟁, 미륵과 석가의 경쟁담, 설문대할망, 남신, 사체화생, 일월조정, 사슴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 창세신화에 나타난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을 살펴보고, 미륵과 석가의 대결에 담겨 있는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신이 창조의 주체로서 인간세계의 형성과 인간의 창조를 책임지는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많은 여신들이 이와 같은 창세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창세신화는 어떠한가?

미륵은 창세신이다. 천지를 분리하여 대지를 형성하고, 일월성신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했다. 미륵이 창조한 세계는 태평했고 부족함이 없었다. 석가는 미륵의 창세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 어느 시점에 태어났다. 창세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능력도 미륵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미륵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석가에게 양도했다. 미륵은 실패한 창세의 신으로 물러나고 석가가 인간세상의 새로운 신이 되었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초에 여신이 존재했다. 인간은 최초의 신을 여성으로 표현했다. 인간이 자연에서 발견한 최초의 이미지는 바로 여성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신 중심의 모계사회가 끝나고 남신 중심의 부계사회로 이행하면서, 창조여신은 새로 등장한 남신에게 살해되거나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걷게 되었다. 약탈과 전쟁으로 점철된 고대국가가 형성되고 부계중심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남신이 최고신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한국 창세신화의 두 신격 미륵과 석가는 사라지는 창조여신, 부상하는 남신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다. 요컨대 이 글은 창세신 미륵이 남신일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 통념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창조여신으로서 미륵 재발견을 위한 탐색이라 할 수 있겠다. 창세신화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륵과 석가의 성별신적 특징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모호한 지점으로 남아 있다. 미륵이 여신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자료 분석을 통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추정하는 선에서 이야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신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남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¹⁾ 여기

1) 미륵이 석가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꽃피우기 능력은 일신(日神)적 원리를 구현한 것이라고 하여, 미륵의 여신적 특성을 처음 주목한 연구자는 박종성이다. (박종성, 「한국·만주·몽골의 창세신화 변천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11, 2000, 97~98쪽.) 이후 조현철은 힌두교의 미트라에서 비롯된 미륵은 자연 자체로 창조여신의 전통 위에 있으며, 석가는 문명을 상징하는 인격신이라고 언급했다. (조현철, 『우리신화수체계』, 한겨레출판사, 2004.) 그러나 이후의 글에서는 미륵과 석가를 모두 남성창조신이라고 보았다. (조현철,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91쪽. ; 조현철, 「동아시아 신화에 나타난 여신창조원리의 지속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31, 18~19쪽) 홍연표는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미륵의 대모신적 성격을 확인하면서도 성별을 여성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홍연표, 『창세신화에 나타난 미륵-석가의 형상적 특징과 신적 성격』, 고

서 우리는 미륵이 남신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한국 창세신화 이해의 여러 가능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창세신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을 밝히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미륵의 성별신적 특성이 문면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이 작업은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창세신화의 주요 신화소를 분석하여 미륵의 신적 성격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미륵과 석가의 내기이다. 내기는 기본적으로 신적 자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미륵에 내재된 창조여신으로서의 자질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성별신적 특성을 추출할 것이다. 또한 거인창조여신 설문대할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문대할망이 보여주는 우주적 거인성, 천지를 분리하는 창세활동 등은 미륵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여, 미륵이 거인창조여신의 맥을 이어가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륵과 석가의 대결 양상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히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 신화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징물 및 사건이 등장한다. 석가의 사슴 사냥과 육식, 바위로 변한 중, 사슴의 사체화생, 상반되는 특질을 보이는 세시애기와 동지백이, 석가의 일월조정 등이 그것이다. 이제까지 이 신화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 신화소가 갖고 있는 의미는 작지 않다. 미륵이 떠난 이후 최고신으로 등장한 석가가 창세신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해나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신화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창세신화는 주로 무속신화로 전승되고 있다. 본토 지역에서 전승되던 김쌍돌이본 <창세가>, 전명수본 <창세가>, 강춘옥본 <생굿>,

정운학본 <삼태자풀이>, 권순녀본 <순산축원>, 박용녀본 <당고마기노래>, 최음전본 <당금아기>, 이종만본 <시루말> 등의 각편이 있고, 제주도 지역에 전승되는 문창헌이 채록한 <천지왕본>, 박봉춘본 <초감제>, <천지왕본풀이>, 김두원이 채록한 <천지왕본>, 이무생본 <천지왕본>, 강제길본 <오등본향>, 고대중본 <천지왕본풀이>, 강일생본 <천지왕본풀이>, 정주병본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등의 각편이 있다.

본고에서 다룬 텍스트는 한국의 창세신화로서의 대표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김쌍돌이본 <창세가>이다. 김쌍돌이본은 1923년 손진태 선생이 함경남도 함흥군 운전면 본궁리의 큰 무당, 김쌍돌이로부터 채록하여 1930년 『조선신가유편』에 수록 출간되었다. 최초로 채록된 창세신화 자료이기도 하거니와 창세신화의 중요 신화소를 고루 담아내고 있어 한국 창세신화의 범례²⁾라 평가될 만큼 한국 창세신화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자료이다.

한국 창세신화는 몇 가지 신화소로 구성되어 있다. 신화소를 추출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은 김현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천지개벽’, ‘창세신의 거신적 성격’, ‘물과 불의 근본’, ‘인간창조’, ‘인세차지경쟁’, ‘일월조정’, ‘사냥 화식 수목 암석 칠성신앙 등의 기원’, ‘천부지모의 결합과 시조출생’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간세상 및 인간 창조’, ‘미륵-석가 경쟁’,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으로 창세신화의 신화소를 분류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각편의 특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인간세상 및 인간 창조’ 신화소는 대지 형성³⁾, 일월 창조, 인간 창조

2) 김쌍돌이본 <창세가>는 서대석에 의해서 자료 소개와 중심 화소의 성격이 밝혀졌으며, 이후 김현선에 의해서 정리 체계화 되었다.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학연구실, 1980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3) ‘대지형성’ 신화소는 이제까지 ‘천지분리’로 칭해졌던 화소이다. ‘미륵-석가 대결’ 신화소를 포함하는 한국과 몽골의 창세신화는 이 화소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등의 창세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창세신화의 특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신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화소가 가장 풍부하게 나타나는 자료는 김쌍돌이본이다. 전명수본, 정운학본, 이종만본, 권순녀본은 이 신화소가 미륵의 우주적 거인성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대체되는데 김쌍돌이본에서 간략하게 처리된 부분을 보완하기에 적절한 자료이다. 강춘옥본의 이 신화소는 중국의 우주생성론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적 의미가 거세되어 있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⁴⁾ 박용녀본과 최음전본은 이 신화소가 나타나지 않고, 제주도 천지왕본풀이 유형은 강춘옥본처럼 중국의 음양오행사상에 기반한 우주생성론을 따르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떨어진다.

‘미륵-석가 대결’ 신화소⁵⁾는 인간세상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자료에 나타나는 신화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신화소는 김쌍돌이본에서 가장 풍부하게 묘사된다. 내기가 세 차례 이뤄지고 내기의 방식도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전명수본은 김쌍돌이본과 친연성이 많은 자료다. 김쌍돌이본의 ‘미륵-석가 경쟁’ 신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라 할 만하다. 제주도 천지왕본풀이 유형은 신의 이름, 성격, 역할 등이 김쌍돌이본을 비롯한 본토 지역의 창세신화와 다르고, 두 신격이 공생관계에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본토 지역의 창세신화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대별왕(미륵에 대응하는 신)은 창세신이 아니어서 창세신화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어 창세신화 자료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경우 천지분리를 통해 만물이 생성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몽골의 경우 바다 속의 모래를 가져다 대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만물이 살 수 있는 대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대지형성’이라 칭하기로 하겠다.

4)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31쪽.

5) 이 신화소는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 ‘미륵과 석가의 대결’ 신화소, ‘미륵-석가 경쟁담’ 등으로 지칭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미륵과 석가의 대결에 주목하여 ‘미륵-석가 대결’ 신화소라고 칭하기로 한다.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는 이제까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신화소이다. 미륵이 내기에서 지고 떠난 후 해와 달이 두 개씩 나타나는 일월의 혼란이 생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천국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신화소이다. 사슴을 사냥하여 구워먹고, 죽은 사슴으로 자연물을 창조하고, 동지백이와 세시애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석가의 일월조정에 간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신화소는 김쌍돌이본과 강춘옥본에만 나타나는데, 김쌍돌이본은 내용이 많이 축약되어 있어 해당 부분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비해 강춘옥본은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여 김쌍돌이본의 모호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김쌍돌이본이 한국의 창세신화로서의 대표성을 갖춘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쌍돌이본을 주 자료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밖에 전명수본, 강춘옥본, 정운학본, 권순녀본 등은 비교적 창세신화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고, 김쌍돌이본을 보완할 만한 부분이 있으므로 보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밖에 ‘미륵-석가 대결’ 신화소를 포함하는 몽골 창세신화가 한국의 창세신화와 유사한 만큼, 비교적 차원에서 참고하도록 한다.

2.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

1) 미륵과 석가의 내기에 숨겨진 미륵의 창조여신적 특징

미륵과 석가는 미륵이 창조한 인간세상의 지배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3번의 내기를 한다. ‘금병·은병에 줄을 매달아 동해에 던져 끊어지지 않게 하기’, ‘여름에 성천강 붙이기’, ‘잠자면서 무릎에 꽃 피우기’와 같은 내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내기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없었

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선명하게 파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잠자면서 무릎에 꽃 피우기’가 미륵의 생명창조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앞의 두 가지 내기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내기가 매우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다,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된 탓에 본래의 신화적 의미나 상징이 마모되고 훼손되어 있어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텍스트에 따라 내기의 내용에 차이가 있고, 내기의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고행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김쌍돌이본은 내기의 신화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김쌍돌이본에서 미륵과 석가의 내기는 세 차례 이루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미륵이 내기 방식을 정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기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세상의 지배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석가의 뜻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기는 미륵 스스로 석가에 비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미륵이 석가보다 우월하다고 자신했던 자질은 무엇이었을까?

세 차례의 내기 가운데 ‘잠자면서 무릎에 꽃 피우기’는 한국과 몽골의 창세신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모티프이다. 그런 만큼 내기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내기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한 방에 누워 잠을 자면서 무릎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 이 세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잠을 자면서 무릎에 꽃을 피우는 행위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한다면 미륵 스스로 석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미륵의 신적 특질이 드러날 것이다.

이 내기는 꽃 피우기와 잠자기라는 두 가지 행위가 결합된 형태이다. 우선 꽃을 피운다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⁶⁾ 꽃을

6) 꽃 피우기를 생명창조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선은 꽃 피우기가 생명의 잉태, 즉 열매 수확과 씨앗 획득이라는 경계에 대한 문화적 상징이라고 보았고 오세정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피우는데 성공한 신은 미륵이다. 그런데 미륵이 꽃을 피우는 위치가 자신의 '무릎'이라는 사실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몽골 창세신화에서는 그릇, 유구의 창세신화에서는 꽃병 혹은 화분과 같은 물체에 꽃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에만 '무릎'에 꽃을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륵이 다른 무엇이 아닌 자신의 무릎에 꽃을 피우는 행위는 미륵의 몸이 곧 대지이고 그 자신이 대지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 그런 점에서 한국 창세신화 속 미륵이 대지여신적 면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내기의 나머지 구성요소는 잠자기이다. 내기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는 김쌍돌이본과 정운학본을 제외하면, 전명수본, 강춘옥본, 최음전본, 박용녀본 등에서 세 번째 내기를 '잠자기 내기'라 지칭하는데서 세 번째 내기가 '잠자기'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내기에서 미륵은 '참잠'을 자고 석가는 '반잠'을 잔다. 그런데 미륵은 '참잠'을 자면서도 꽃을 피우는데 성공하지만 석가는 '반잠'을 자면서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미륵은 '참잠'을 잤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웠으나, 석가는 거짓으로 잠자는 척 하면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대비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기의 핵심은 '참잠'을 자면서도 누가 꽃을 피울 수 있는가를 통해 '참잠'이 창조의 주체가 갖는 속성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생애적 생명창조능력을 지닌 자가 세상의 지배권

박종성은 꽃 피우기는 성장과 창조의 행위이며 잠자면서 꽃 피우기는 창조의 원리와 과정을 인지한 쪽이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일종의 시험과정이라고 보았다. 신 연우는 여성의 가임할 수 있는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 7) 대지는 생명을 배태하고 생명을 키워낸다. 이는 또한 여성만이 지닌 능력이다. 그래서 초기 신석기 시대 농경 전통에서 여신의 가장 단순한 표상은 대지의 어머니로 나타난다. (조지프 캠벨, 『여신들-여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잊혔는가』, 구학서 옮김, 청아출판사, 2016, 37쪽)

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미륵의 생각이 담겨 있다 할만하다.

잉태와 출산은 오직 여성의 몫이다. 생명을 창조함에 있어 여성은 단 순히 자신이 생래적으로 갖고 있는 본성을 드러내면 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축치족 창세신화이다.

까마귀와 그의 아내가 매우 작은 땅에서 살고 있었다. 그 땅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어떤 다른 생물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남편 '쿠르킬'ku'urkil에게 땅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땅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을 자러 갔고, 그는 잠자는 그녀를 지켜 보았다. 까마귀 몸통을 갖고 있던 그녀의 발이 점차 사람의 손가락으로 변했다. 그 후에 그녀는 희게 변했고, 깃털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는 계속 까마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도 '쇠로 된 깃털을 가진 새' 세 마리를 낳았다. 또 그녀는 임신을 하여 사람 모습의 남자 쌍둥이를 낳았다. 아이들이 아버지인 까마귀를 비웃었다. 이때 까마귀는 땅을 만들기 위해 멀리 날아갔다. 먼저 그는 <새벽>, <한낮>, <천정> (天頂) 등 모든 호의적인 <존재>('바이르기트'va'irgit)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도와 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 갔다. 그 곳에 하늘과 땅의 마찰로 생긴 먼지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증가시키려고 하였지만 땅이 부족했다. 까마귀는 그들과 함께 날아가 배변(排便)했다. 변이 물 위에 떨어져 땅이 되었다. 또 그는 소변을 보았는데, 한 방울 떨어진 곳은 호수가 되었고, 많이 떨어진 곳은 강이 되었다. 그 후 그는 단단한 물체를 배설했는데, 큰 조각은 산이 되었고, 작은 조각은 언덕이 되었다. 모든 땅이 지금처럼 되었다. 그리고 그는 더 멀리 날아가 자작나무, 포플러, 미루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오크나무 등을 도끼로 잘랐다. 소나무 토막은 해마와 북극곰이 되었고, 오크나무 토막은 바다표범이 되었으며 자작나무 토막은 큰 고래가 되었다. 다른 나무토막들은 모두 물고기, 게, 벌레, 바다에 사는 모든 종류의 생물이 되었고, 또 야생순록, 여우, 곰, 지상의 모든 사냥감이 되었다. 까마귀의 아이들도 사람이 되어 떠났다. 그들은 모두 남자여서 사람을 번식시킬 수가 없었다. 이때 작은 '거미-여자'가 매우 가느다란 실을 타고 위에서 까마귀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저절로 임신한 후에 딸 네

명을 낳았다. 그들은 매우 빨리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 까마귀는 그들 가운데 한 명을 남자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들은 사람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몰랐다. 까마귀는 그들에게 사람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성교한 후에 사람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증가되었다.⁸⁾

까마귀의 아내가 까마귀 남편에게 땅을 만들라고 하지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아내는 잠을 자러 가고 남편은 아내의 잠든 모습을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 아내가 잠을 자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도 새끼 새 마리를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 후 아내는 쌍둥이 인간을 낳았는데, 남편은 아내가 인간을 낳은 사실에 감탄하고 자신도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까마귀 새끼와 쌍둥이 인간을 낳은 아내의 모습에 감발되어 세상을 창조할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러나 까마귀의 창조과정은 지났했다. 모든 호의적인 존재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매번 거부당하고, 마지막으로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땅을 창조할 수 있었다. 까마귀의 아내가 잠을 자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잉태했다면, 까마귀 남편은 지난한 노력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자기'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창조를 위해 까마귀 남편이 해야 했던 인위적인 노력과 대비되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잠자면서 꽃 피우기'의 핵심은 남성은 갖고 있지 않은 여성 고유의 생식력, 즉 생래적 생명창조능력을 시험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한편 몽고나 유구 창세신화에서는 '참잠', '반잠'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고 잠을 자면서 누가 먼저 꽃 피우는지 내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 몇 편은 잠자는 상황 없이 먼저 꽃 피우기를 겨루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⁹⁾ 한국의 경우에도 정운학본, 최음전본, 권순녀본에서는 '참

8) B. G. Bogoras, 『The Jesup North Pacific Expedition, Vol. VIII, Part I -Chukchee Mythology』, New York, 1904, 151~154쪽. (곽진석, 「시베리아 축치족 창조신화의 양상과 구조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46, 2016, 381쪽 재인용)

잠, ‘반잠’ 구분 없이 석 달 열흘 동안 잠을 자며 꽃 피우는 내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창세신화, 특히 김쌍돌이본에서는 ‘잠자기’, ‘참잠과 반잠’과 같은 상징적 기제를 덧붙여 미륵의 생애적 생명창조능력 및 창조여신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첫 번째 내기는 ‘금병·은병에 줄매달아 동해에 던져 끊어지지 않게 하기’¹⁰⁾이다. 금병과 은병에 줄을 달아 동해에 던진 후 그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내기이다. 미륵은 자신의 병줄이 끊어지면 석가의 세월이 되고 석가의 병줄이 끊어지면 석가의 시절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이 내기를 제안한다. 내기는 석가의 병줄이 끊어져 석가가 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내기는 김쌍돌이본에만 나타난다. 미륵-석가 경쟁형 창세신화 가운데 세 차례 내기를 하는 텍스트는 김쌍돌이본, 전명수본, 강춘옥본인데, 앞의 두 차례 내기는 텍스트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전명수본의 경우 ‘산호채로 공중에 매달린 술병을 쳐서 술만 허공에 달려 있게 하기’로 나타나는데, ‘병-줄-공중’의 조합이 ‘병-줄-동해’로 나타나는 김쌍돌이본과 유사하다. 둘 중 어느 것이 본래 모습에 가까운 형태인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여러 면에서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김쌍돌이본이 본래 모습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내기에는 ‘병’, ‘줄’, ‘동해’라는 세 가지 상징물이 등장한다.

9) 몽고 할하신화(체렌소드놈, 『몽골 민간신화』, 이평래 옮김, 대원사 30쪽), 몽골 오르도스 신화(체렌소드놈, 앞의 책, 29쪽)에서는 잠자는 상황 없이 누가 먼저 꽃 피우는지 내기하는 것으로, 유구 미야코 신화(김현선, 『한국 창세신화 연구』, 길벗, 1994, 492~493쪽)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꽃 피우기 내기를 시작했는데, 석가가 지혜로 미륵을 줄게 하여 꽃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이 내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현선은 병을 낫건지기를 하는 술병으로 보아 무당의 주술적 권능을 시험하는 내기라고 해석했다.(김현선(1994), 앞의 책, 166쪽), 오세정은 일종의 줄다리로 수렵, 어로, 채취 자연적 생활상태를 보여준다고 해석했다.(오세정, 「<창세가>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체계」, 『구비문학연구』 20, 2005, 361쪽)

‘병-줄-동해’의 조합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여 미륵이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능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신화에서 ‘병’은 일반적으로 자궁을 상징한다. 특히 물과 연관되어 있는 ‘병’이라면 더 더욱 그러한 만큼, ‘금병’과 ‘은병’은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이라 볼 수 있다. 인간 창조 과정에 나타나는 금벌레와 은벌레가 각각 남자와 여자로 성장한 사실에 비춰보면, 금병은 남자 태아, 은병은 여자 태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동해’와 ‘줄’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금병과 은병을 담고 있는 ‘동해’ 바다는 태아를 품고 있는 ‘양수’를 상징하고, ‘줄’은 자궁 속에 있는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해주는 ‘태줄’이다. 즉 금병, 은병과 연결되어 있는 줄을 잡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미륵의 모습은 자궁 속 태아와 연결되어 있는 태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여 태아를 길러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임신 및 출산은 여성만 가능한 능력이다. 도르도뉴(Dordogne)에 있는 로셀(Laussel)의 바위 은신처에서 출토된 조각상(B.C. 22,000~18,000)에는 생명 탄생에 대한 고대인의 원초적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 여성이 오른손에 달을 상징하는 들소의 뿔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달이 차오르는 13일을 지시하듯 13개의 금이 그어져 있고, 왼손으로는 유난히 부풀어 오른 자신의 복부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달이 차가는 국면과 여성 자궁의 임신 간에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여성의 임신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그릇이라는 특성을 확보하게 되고, 임신으로 대변되는 여성성은 인간이 발견한 최초의 신성으로 숭배의 대상이 된다.¹¹⁾ 이로써 여성은 세계와 우주를 생성하고 보존하는 최초의 신이 되어 위대한 어머니 여신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 내기에 나타나는 미륵에게서 이러한 어머니 여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1) 조지프 캠벨(앞의 책), 47쪽. : 장영란, 『위대한 어머니 여신-사라진 여신들의 역사』, 살림출판사, 2003.

2) 설문대할망과의 대비를 통해 본 거인창조여신으로서의 미륵

한국에는 다양한 이름의 거인창조여신이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마고할미와 특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제주도 설문대할망, 서해안의 개양할미,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경상도 동부지역의 안가다할미가 그들이다. 이런 마고할미 계통의 여신들은 비록 제주도와 같은 일부 지형을 생성하는데 머무르는 존재이지만, 지형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창세신적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러나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모티프가 창세신이라는 규정에 흡족한 증거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형 형성 설화의 반열에 든다고 하겠으나,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자연 만물 및 인간을 창조하는 창세신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태초에 천지를 분리한 존재가 설문대할망이었다고 하는 각편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하늘과 땅이 붙어 있었는데, 천지개벽할 때에 아무래도 열어젖힌 사람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주 키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붙은 것을) 딱 떼어서 하늘은 위로 가게 하고 땅은 아래로 가게 하고 보니, 그곳이 물바다로 살 수가 없어서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흙을 퍼 올려서 제주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두 전설로 하는 말입니다.¹³⁾

천지개벽할 때에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이것이 분리되었고,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중요 임무를 수행한 존재가 설문대

12)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 조현설, 『마고할미 신화 연구』, 민속원, 2013. 이 글에서는 이 계통의 신들을 총칭할 때는 ‘마고할미 유형’이라는 용어를, 각편의 경우에는 ‘설문대할망’ 식의 해당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13) <설문대할망>, 『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712쪽.

할망이라는 것이다.¹⁴⁾ 설문대 할망이 천지를 분리하는 창세를 담당하는 이야기는 한 편 더 전승되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하늘과 땅을 두 개로 쪼개어 놓고, 한 손으로는 하늘을 떠받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짓누르며 힘차게 일어섰다. 그러자 맞붙었던 하늘과 땅 덩어리가 금세 두 쪽으로 벌어지면서 하늘의 머리는 자방위(子方位)로, 땅의 머리는 축방위(丑方位)로 제각기 트였다.¹⁵⁾

현재 전승되는 대부분의 마고할미들은 세계를 창조하는 여신의 모습이 라기보다는 제주도과 같은 일부 지형을 창조하거나 그마저도 종종 실패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여신의 위상이 남성중심적 문화를 거치면서 훼손된 결과라 할 것인데, 위의 자료를 통해 훼손되기 이전 설문대할망의 창조여신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설문대할망이 천지가 붙어 있던 혼돈의 시절에 하늘을 밀어 올려 천지를 분리시키는 모습은 미륵이 태초에 보여준 모습과 흡사하다.

한을과 사이 생길 적에 彌勒님이 誕生한즉, 한을과 사이 서로부터, 썩러지 ㄴ 안이 하소아, 한을은 북개꼭지차림 도 ㄴ라지고, 싸는 四귀에 구리기동을 세우고.¹⁶⁾

위의 자료는 김쌍돌이본 <창세가>의 첫 부분으로 미륵이 천지개벽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천지가 개벽할 때에 하늘과 땅은 서로 붙어 떨어지지

14) 설문대할망이 지형형성뿐만 아니라 천지분리에까지 관여하여 창조여신적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245-246쪽 ; 권태효, 「지형창조 거인설화의 성격과 본질」, 『탐라문화』 4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4, 24-25쪽 ; 허남춘, 「설문대할망의 창세신적 특성과 변모양상 - 주변민족 여성신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8, 2014, 318-320쪽.

15)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5, 28쪽.

16) 김현선(1994), 앞의 책, 230쪽.

아니하였는데, 미륵이 땅 네 귀에 구리기둥을 세워 천지를 분리시켰다. 천지개벽 시 하늘과 땅은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미분의 상태였고, 미륵이 이를 분리하여 만물이 생겨날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문대할망 이야기에서 보았던 것과 거의 흡사하다. 그런 점에서 천지분리의 주체로 등장하는 마고할미와 미륵은 창세신화의 첫 부분을 여는 창세신으로서, 같은 계열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태초의 창세신은 여성신의 형상이나 속성을 간직하고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만주족의 ‘아브카허허’, 회랍의 ‘가이아’, 수메르의 ‘남무’, 바빌로니아의 ‘티아마트’, 이집트의 ‘누’이 그러한 예이다. 특히 중국 소수민족 창세신화의 창조여신은 설문대할망이나 미륵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한족(漢族)을 비롯한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은 민족 수만큼이나 다양한 창세신화가 전승되고 있다. 그런데 설문대할망이나 미륵처럼 천지를 분리하여 세계를 창조하는 신이 대체로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어 흥미롭다. 요족(瑤族)의 여신 밀락타(密洛陀), 기락족(基諾族)의 아모요백(阿嫫腰白), 장족(壯族)의 포락타(布洛陀), 납호족(拉祜族)의 액사(厄莎), 이족(彝族)의 아홉 명의 여신, 몽고족의 맥덕이(麥德爾) 등이 천지를 분리하는 창조여신들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요족(瑤族)의 여신 밀락타(密洛陀)는 태고에 천지가 혼돈에 싸여 있을 때 두 어깨로 천상을 받치고 두 다리로 땅을 밟고 서서 하늘과 땅을 구분하였다. 중국의 기락족(基諾族)의 아모요백(阿嫫腰白)이란 여신은 물속에서 태어났는데 첫 번째 과업이 천지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천지는 칠혹과 같은 혼돈 속에서 단단히 하나로 붙어있었는데, 아모요백이 그 반을 밟고 반을 손으로 밀어 올려 천지를 분리했다. 태곳적 천지는 한 덩어리로

17) 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민음사, 2007, 231쪽.

서유원, 「중국 소수민족의 주요 創世神話에 보이는 천지형상과 補天神話의 연구」, 『중국어문논역총』, 39, 2016, 40~44쪽.

단단히 붙어 있어 나눌 수가 없었는데, 장족(壯族)의 여신 포락타(布洛陀)는 있는 힘을 다해 하늘을 밀어 올렸다. 그러자 하늘을 덮고 있던 육중한 덮개는 위로 올라가고 대지는 아래로 깊게 밀려 내려갔다. 납호족(拉祜族)의 여신 액사(厄莎)는 태고에 천지를 나누기 위해 큰 금속 기둥 네 개와 큰 물고기 네 마리를 손발을 비벼 만들고, 그 물고기 위에 기둥을 세워 하늘을 받치고 있게 했다. 천지는 원래 하나로 혼돈되어 있었는데 이족(彝族)의 아홉 명의 여신이 철빛자루로 하늘을 쓸어 올리고 땅을 쓸어 내려 하늘과 땅을 분리했다. 몽고족의 여신 맥덕이(麥德爾)는 우주의 혼돈 시기에 흰 신마를 타고 우주를 돌아다녔다. 이때 불이 일어나 우주의 흙먼지를 태우니 그 재가 아래로 떨어졌다. 흙먼지는 점점 쌓여 땅이 되었다. 맥덕이(麥德爾)는 거북에게 명하여 땅을 등에 지게 하니 이때부터 하늘과 땅이 나뉘게 되었다.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태초 천지가 생겨날 때 하늘과 땅은 미분된 상태였다는 것이 한국 및 중국 소수민족의 일반적인 발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천지를 분리하여 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하는 존재 역시 중국의 밀락타나 한국의 설문대할망과 같은 여성이었다고 하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과 맥을 같이 하는 미륵도 창조여신 계열에 속하는 신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설문대할망과 미륵의 친연성은 그들의 거인 형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고할미 유형의 창조여신은 '대의(大衣)'와 '대식(大食)'으로 형상화 되는 거인성을 간직하고 있다.

1) 할머니는 키가 너무 커 놓으니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옷을 한 벌만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했다.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는 명주 1백 통(1통은 50필)이 든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으나 99통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속옷은 만들지 못했고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 가다가 중단하여 버렸다. 그 조천면 조천리, 신촌리 등 앞바다에 있다 한다.¹⁸⁾

2) 미륵님이 옷이 업서 짓겻는데, 가음이 업서, 이山 저山 넘어가는, 버털어가는 척을 파내여, 明혀 내여, 삼아 내여, 익여 내여, 한올알에 배틀 노코, 구름속에 영애 걸고, 들고 짱々, 노코 짱々 짜내여서, 직長衫을 마련 하니, 쏘뽀이 지개요, 半뽀이 소맸너라. 다섯자이 섭힐너라, 세자이 짓일너라. 마리 곡갈 지어 되는, 자세치를 썩치내여 지은 죽은, 눈무지도 안이 내려라, 두자 세치를 썩치내여, 마리곡갈 지어내니, 귀무지도 안이 내려와, 석자 세치 썩치 내여, 마리곡갈 지어내니, 턱무지에를 내려 왔다.¹⁹⁾

자료 1)과 자료 2)는 각각 설문대할망과 미륵의 거인성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옷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거인성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매우 유사하다.²⁰⁾ 물론 남성거인의 모습을 띠는 거인설화가 일부 전승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남성거인설화 가운데 태초의 지형을 형성하는 형태의 자료는 없으며, 지형을 창조하는 기능 또한 현저히 약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창조신적 면모를 간직한 거인설화는 여성이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이다.²¹⁾ 그렇다면 거인성이 창조여신을 표상하는 주요한 징표라 보아, 미륵을 거인창조여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3. ‘미륵석가’ 대결의 의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륵은 태초 인간세계와 인간을 비롯한 만물을 만든 창조여신이다. 따라서 미륵과 석가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창조

18)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22~23쪽.

19) 김현선(1994), 앞의 책 230~231쪽.

20) 물론 설문대할망은 미륵과 달리 스스로 옷감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인간에게 부탁해야만 했고 1% 옷감이 부족하여 완성하지 못한다. 거인성이 더 이상 제주도과 육지를 이어주는 창조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 이른다. 창조여신으로서의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21) 권태효,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2010, 241~242쪽.

여신과 남신의 대결 양상을 띠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부터 창조여신과 남신의 대결이 어떤 양상을 띠며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미륵과 석가의 대결양상을 살펴볼 때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륵 시대와 석가 시대가 시간적 선후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미륵과 석가를 동시대의 신으로 이해하고 미륵과 석가의 대결에서 평행창조원리를 읽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제주도 천지왕본풀이 유형이나 몽골의 '미륵-석가 대결'형 창세신화에 기대어 해석한 결과로 생각된다. 제주도 창세신화나 몽골 창세신화에서는 두 신격이 동시에 등장하여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쌍돌이본을 비롯한 본토 지역의 창세신화에서는 두 명의 신이 시간차를 두고 등장한다. 미륵은 태초에 탄생하여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지만, 석가는 미륵이 창세활동을 모두 마치고 태평세월을 구가하고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온다. 심지어 강춘옥 본과 정운학본에서는 미륵이 세계와 인간을 창조한 이후 어느 시기에 탄생하고, 12살에 서천궁에 들어가 9년간 도를 닦은 후에야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²²⁾

이처럼 태초에 등장한 미륵과 후대에 등장한 석가의 대결은 태초의 창조여신과 후대 남신의 대결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창조여신과 남신은 왜 다투는가?

彌勒님 歲月에는, 섬두리 말두리 잡숫고, 人間 歲月이 太平하고 그랬는
대, 釋迦님이 내와서서, 이 歲月을 아사 췌자고 마련하와, 미러님의 말씀
이, “아직은 내 歲月이지, 너 歲月은 못된다.” 迦님의 말씀이, “彌勒님 歲
月은 다 갖다. 인제는 내 歲月을 만들갓다.”²³⁾

22) “인도 나라에서 석가모여래 서인님이 인도 皇帝 아들로 금생에 탄하야 三四 十二 열두 살이 갓시니 서천궁에 들어가서, 설산에 덕(基?)을 보고 금부덕산 마하절을 꺾이놓고 옥수 삼편(번)불도 삼편천수 삼편 三三은九 아홉 번 올리며 九年을 선도 닦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선국에 나오니”(강춘옥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53쪽) : “그적에야 석가 열이 十年에다 工夫를 하고 一年에다 道通을 하여 이 世上에 나오실 적에”(정운학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92쪽)

창조여신 미륵이 만든 세상은 ‘태평’했다. 미륵시대에 대한 묘사가 각 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륵시대를 이처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하자.

옛날 옛적 간날 갈적에는 사람이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화식으로 아니 먹기 때문에 그때 미륵님의 시대 그때 그 시절에는 해도 두 분 달도 두 분 마련하고 또 옷 나무에는 옷이 열고 밥나무에는 밥이 열고 깨꿈나무에는 깨꿈 열고 국수나무에는 국수 열고 이레 떡갈 앞에 떡이 열고 화식으로 아니 먹기 때문에, 사람은 화식으로 아니 먹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 미륵님의 시절에는 이 마음은 모두 자손들은 온순하고 병신 자손도 없고, 그래 미륵님의 시절에는 그랬는데²⁴⁾

우선 미륵 시대는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식량이 풍부했다. 나무에서 온갖 음식이 열릴 뿐 아니라, 왕모래가 입쌀이고 새모래가 좁쌀이며 차돌이 차떡²⁵⁾인 시절이어서 온갖 만물이 풍족하다. “한 사람이 한 말 밥을 먹더라도 먹고 남고”, “온갖 전필로 옷을 지어도 입고 쓰고 남는” 세상이었다.²⁶⁾

그때나 그 시절에는 새가 말이 말을 하고 나무들이 걸음 짓고 鳥鵲까지 말살하고 말머리는 뿔이 나고 쇠머리는 모래기(말갈기) 돈고 달(雉)그머리는 귀가 나고 개머리어(예) 뱃이 듣는 이런 시절입니다.²⁷⁾

또한 미륵시대에는 모든 생물 및 무생물이 말을 하는가 하면, 개에게 뱃이 있고 꿩에게는 귀가 있었다. 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없고, 동물의 형

23) 김쌍들이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31쪽.

24) 권순녀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383쪽.

25) 전명수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39쪽.

26) 정운학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90~292쪽.

27) 강춘옥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51쪽.

태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분화되어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만물이 언어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무질서 혹은 혼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만물의 소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물의 형태가 미분화된 상태 역시 무질서로 인식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유연함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미분화된 미륵시대를 “태평‘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화 수용자들은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은 미륵님이 하는 말이 나는 쪼차 미륵당으로 도라든다. 미륵님이 도라가면(서) 나무 둘 개 돛 짐상 말 다 허든 것을 말 못허게 허여노코 미륵당으로 도라가니²⁸⁾

미륵은 내기에서 지고 미륵당으로 돌아가면서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물 및 무생물의 언어능력을 제거한다. 언어능력을 빼앗는 것이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능력 상실이 부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석가는 이와 같은 상태를 다르게 인식한다.

석가님이 불교을 패자하니 미륵맹서인님이 주인이 됩네다. 안죽으나 세월이 멀었다. 내 천지 멀었다, 내 국이 멀었다. 석가임이 하는 말이 미륵대 시대를 그냥 두면 인간이 미욱해 못쓰겠어, 세월어 놓고 서와지(다른 곳으로) 들어가오.²⁹⁾

석가는 미륵시대를 그냥 두면 인간이 미욱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태평한 세상이 지속된다면 인간은 미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석가는 미륵시대를 무

28) 전명수본 : 김헌선(1994), 앞의 책, 244쪽.

29) 강춘옥본 : 김헌선(1994), 앞의 책, 254쪽.

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라고 보는바,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인간은 더욱 미련해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석가는 왜 인간이 미혹해지면 문제라고 생각할까? 석가시대는 미륵시대와 다른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석가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 서리 배 곯은 사람이 많”고 “입을 것이 없어서 옷 벗은 사람이 많”아져 “거리 거리 걸객”³⁰⁾인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거지뿐만 아니라 온갖 비천한 인물들도 나타났다.

축々하고 더러운 석가야, 너 歲月이 될나치면, 썩어마다 솟대 나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家門마다 妓生 나고, 家門마다 寡婦 나고, 家門마다 무당 나고, 家門마다 逆賊 나고, 家門마다 白丁 나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합들이 치들이 나고, 너 歲月이 될나치면, 三千중에 一千居士 나니니라. 歲月이 그런즉 末世가 된다. 그리든 三日만에, 三千중에 一千居士 나와서³¹⁾

이 인용문은 미륵이 떠나면서 석가시대에 대해 예언한 것이다. 석가시대가 되면 기생, 과부, 무당, 역적, 백정, 합들이, 치들이 등이 나타나고, 삼천 명 가운데 천 명의 거사가 나오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륵의 예언처럼 삼천 명 가운데 천명의 거사가 나와 예언이 실현되었다고 했으니, 미륵이 예언한 기생, 과부, 무당, 역적, 백정, 합들이, 집들이³²⁾ 등도 출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석가시대가 더 이상 평등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양한 신분과 직업이 등장하여 세상은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양반덜은 상놈이 되고 상놈들은 양반이 될 때, 향낭 사람은 상방채로 살레 가고 상방 사람은 향낭채로 살게 되”고,

30) 정운확본 : 김헌선(1994), 앞의 책, 295쪽

31) 김쌍들이본 : 김헌선(1994), 앞의 책, 234~235쪽.

32) ‘합들이’와 ‘치들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문맥상 미천한 신분이나 직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네 노소 五倫三綱이 끊어데서 男女老少 區別 없”어지며, “한 나라에 王이 많아 권리 도툼 하는”³³⁾ 세상이 된 것이다.

이처럼 석가시대는 더 이상 평등한 세상이 아니다. 다양한 계층이 생겨나고 계층 간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옷을 밖에 걸어도 흠쳐가는 사람이 없는³⁴⁾ 시절이 아니다. “도둑 심세를 품고 나고 십리에 간적 나고 오리에 도둑이 나고 문안마다 악질이 나”³⁵⁾는 그런 세상이다. 자신의 것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대결하여 쟁취해야 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석가는 인간의 미움함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석가시대는 더 이상 미륵이 지향했던 ‘미움’함으로는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석가시대의 신격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미련한 인간이 돌로 어찌 배를 못겠소. 모래 단줄을 어찌 할가요. 계교 많고 메피 많고 수단 좋은 석가임이 돌로 배를 무어 놓고 모래로 닷줄을 하여 가지고 약수 三千里로 선유법 하러 갔습니다.³⁶⁾

이 인용문은 강춘옥본의 일부분으로,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 미륵에게 내기를 제안하면서 석가가 한 말이다. 여기서 석가는 ‘미움함’을 ‘계교, 피, 수단’과 대칭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계교, 피, 수단’은 석가가 미륵시대를 쟁취할 수 있도록 했던 석가의 자질, 즉 ‘속임수’와도 통한다. 미륵과 석가의 내기에서 석가는 세 차례 모두 진다. 모든 면에서 석가는 미륵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최종적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속임수’를

33) 정운학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94쪽.

34) “그 時節에는 人間이 얼마나 굶던지 도반필 짓을 하고 도반필로 사매하고 -- 十里에 옷을 걸어도 옷을 베끼는 사람이 없고” (강춘옥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53쪽)

35) 강춘옥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55쪽

36) 강춘옥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54쪽

썼기 때문이다. 석가시대는 미륵시대와 비교할 수 없게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평등하지 않았고, 다양한 계층이 형성되었다. 그에 따라 도둑과 거지가 거리마다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 미륵시대의 가치로는 제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었다. 그것이 바로 ‘속임수, 계교, 꾀, 수단’이었다. 미륵은 ‘속임수’를 말세의 원인이라고 보았으나, 석가는 새 시대의 가치로 본 것이다. 석가가 거리마다 가득한 도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둑법을 마련하고, 다양하게 분화하여 나타난 계층을 “천족(賤族), 귀족(貴族)을 마련”³⁷⁾하여 질서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속임수’를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조여신 미륵과 남신 석가의 대결은 다른 문화와 가치가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의 충돌이 왜 생겼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인용문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彌勒님 歲月에는, 섬두리 말두리 잡숫고, 人間 歲月이 太平하고 그랬은 때, 釋迦님이 내와서서, 이 歲月을 아사 썩자고 마련하와, 미륵님의 말씀이, “아직은 내 歲月이지, 너 歲月은 못된다.” 釋迦님의 말씀이, “彌勒님 歲月은 다 갖다. 인제는 내 歲月을 만들겟다.” 彌勒님의 말씀이, “너 내 歲月 앓겟거든, 너와 나와 내기 시행하자. 38)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때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륵시대와 석가시대가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다는 점이다.³⁹⁾ 심지어 강춘옥본과 정운학본에서는 미륵이 세계를 창조한 이후 어느 시기에 탄생했

37) 권순녀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384쪽.

38) 김쌍돌이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33쪽.

39) 미륵과 석가를 동시대 신격으로 이해하고 그 대결에서 평행창조원리를 읽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제주도 지역 천지왕본풀이 유형에 기대어 해석한 결과로 생각된다. 제주도 천지왕본풀이 유형의 경우 두 신격은 형제로 나타난다. 동시대 신격으로 시간적 선후관계에 있지 않다.

고, 12살에 서천궁에 들어가 9년간 도를 닦은 후에 세상에 나왔다고 한다.⁴⁰⁾ 즉 태초에 나타나 세상을 창조한 창조여신 미륵이 후대에 등장한 남신에게 쫓겨났다는 것이 한국 창세신화의 기본 구도이다. 이 점이 미륵과 석가의 대결을 이해하는 중요 단서라 하겠다.

그런데 석가가 세상에 나와 가장 먼저 한 것은 미륵의 세월을 ‘빼앗아야겠다’는 결심이다. 그래서 “미륵님 세월은 다 갔다, 인제는 내 세월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창조여신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남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 석가의 생각이고, 아직은 창조여신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미륵의 생각이다. 이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석가는 ‘빼앗’는 방식을 생각하고 미륵은 내기를 제안한다. 원초적 생명력을 바탕으로 우주적 질서를 지향했던 창조여신 미륵은 문명의 가치를 구현하고 인간적 질서를 지향하는 남신 석가와 대결에서 패한다. 여신 중심의 사회가 끝나고 남신 중심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마침내 창조여신은 실패한 창세의 신으로 몰려나고 남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남신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석가가 통치권자로서 자리 잡는 과정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는 이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彌勒님이 그 적에 逃亡하여, 석가님이 중이랑 다리고 차차 써나서와, 山中에 드러가니 노루 사슴이 잇소야, 그 노루를 잡아내여, 그 고기를 三十疋을 끼워서, 此山中老木을 썩거내여, 그 고기를 구어 먹어리. 三千중中에 둘이 이리나며, 고기를 싸에 써저트리고, 나는 聖人이 되겠다고, 그 고기를 먹지 안이하니, 그 중 둘이 죽어 山마다 바우 되고, 山마다 솔나무

40) “인도 나라에서 석가모여래 서인님이 인도 황제 아들로 금생에 탄하야 三四 십이 열두 살이 갓시니 서천궁에 들어가서, 설산에 덕(基?)을 보고 금부덕산 마하절을 펴이놓고 옥수 삼편(번)불도 삼편천수 삼편 三三은九 아홉 번 올리며 九年을 선독 닦았습니다. 그러가지고 최선국에 나오니” (강준옥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53쪽. : “그적에야 석가 열이 十年에다 工夫를 하고 一年에다 도통을 하여 이 세상에 나오실 적에” (정운학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92쪽.

되고.⁴¹⁾

이 인용문은 김쌍돌이본에 나타난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 부분이다. 그런데 김쌍돌이본의 경우 빠지거나 축약된 부분이 있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⁴²⁾ 이에 비해 강춘옥본은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가 상세하고 풍부하다. 강춘옥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륵이 미륵당으로 떠난 후 해와 달이 두 개가 되는 혼란이 왔다.

2. 석가가 서천국에 가서 두 개씩인 해와 달을 하나로 조정했다.

① 석가 시절이 되니 해와 달이 들어서 죽는 인간이 많아지자, 석가가 하나씩 떼어내기 위해 삼천 명의 무리를 이끌고 서천국으로 갔다.

② 도중에 사슴을 사냥하여 구워 먹었다. 아적나무 두 상재에게 사슴 고기를 먹으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되겠다’며 먹지 않았다. 석가가 안 먹고 남긴 사슴고기를 먹은 후 다시 물에 빨았더니 물고기가 생겼다. 다시 한 번 고기를 물어 옥항에 뿌리니 날짐승이 생기고, 다시 물어 팔만 삼천에 뿌리니 길짐승이 생겨났다.

③ 다시 길을 떠나 약수 삼천리에 이르렀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어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동해 용왕 용곡천자 지불부처가 물고기들에게 석가의 공을 값으라고 한다. 물고기들이 잔등으로 다리를 놓아주어 강을 건넜다. 아적나무 상재 둘도 건너려 하자 고기들이 흩어지며 ‘고기를 안 먹고 부처님 되겠다는 분이 어찌 비린 물고기 등을 건너겠냐’며 거부하여 건너지 못했다.

④ 석가 혼자 길을 떠나 한 곳에 이르니 길 아래에는 뻘뻘하고 잘난 동지백이라는 여인이, 길 위에는 못생긴 세시애기가 있었다. 잘난 동지백이에게 서천국 가는 길을 묻자 자신은 모른다며 세시애기에게 물으라고 했다. 못생긴 세시애기에게 묻자 얘기바위 형제바위를 따라가면 서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알려줬다.

41) 김쌍돌이본 : 김헌선(1994), 앞의 책, 235쪽

42) 석가가 삼천 무리를 이끌고 찾으려던 것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월을 조정하기 위해 서천국을 다녀오는 이야기 가운데 ‘화식’ 및 ‘바위로의 변형’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없다.

⑤ 마침내 서천국 절에 도착하여 노스님에게 해와 달을 하나씩 떼려고 왔다고 말했다. 노스님이 삼천 구슬을 꿰면 뿔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계교 많고 피 많은 석가지만 삼천 구슬을 꿰 방법이 없어 동지백이에게 물었으나 자신은 모른다며 세시애기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못난 세시애기에 방법을 묻자 구슬에 꿀을 발라 놓고 불개미 허리에 실을 묶어 보내면 불개미가 알아서 구슬 구멍마다 들어가서 꿰 수 있다고 했다. 세시애기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여 삼천 구슬을 꿰어 부처님께 바치니 부처님이 해와 달을 하나씩 떼어내게 해주었다.

⑥ 월망국에 들어가서 달을 하나 떼어내 증원천자 지도 그려놓고 군사 십만군을 만들고, 일망국에 들어가서 해를 하나 떼어내 조선천자 지도 그려놓고 왕후 감사의 별, 셋별, 삼태별, 직성별(사람하나 별하나) 등을 만들었다

3. 해와 달을 조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도와준 인물들의 공과를 포상했다.

① 동지백이는 잘났으나 계교 없어 못쓰겠으니 풀무간에서 부식들을 돌리라고 하고, 세시애기는 못생겼으나 계교 많으니 신신 서인이 되게 하라고 했다.

② 약수 삼천리에 이르러 큰 바위가 된 아적나무 두 상재의 내력을 듣고 각각 남두칠성과 북두칠성을 차지하도록 했다.⁴³⁾

미륵이 인세를 떠난 이후 석가는 혼란에 빠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와 달이 둘씩 나타나는 상황이다. 얼어 죽고 데어 죽어 인간의 수가 좁쌀에 낚 만큼이나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가는 일월을 조정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서천국으로 간다. 그런데 일월을 조정하기 위해 떠난 서천국으로의 노정은 석가의 신성이 발휘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 노정에서 석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슴을 사냥하여 사슴고기를 구워 먹은 일이다. 석가는 자신이 먼저 사슴고기를 먹고 자신을 따르는 두

43) 강춘옥본 : 김현선(1994), 255~259쪽.

중에게도 권했다. 그러나 두 중은 부처(혹은 성인)이 되겠다며 육식을 거부했다. 사냥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관련된 일이다. 구석기 시대 여성이 식물뿌리와 산딸기류를 주워 모았다면, 남성은 위험하지만 큰 짐승을 사냥하여 고기를 구했다. 신화 속에서 육식이 남신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다.⁴⁴⁾ 그리고 육식은 생명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죽음 및 유향한 삶과 연결된다. 여기서 사냥, 육식, 두 중의 바위 변형, 부처님(혹은 성인) 사이에 얽힌 고리를 찾을 수 있다. 사냥과 육식이 남성, 유향 등의 남신적 원리를 상징한다면, 바위와 소나무, 부처(혹은 성인)는 여성, 무한(영원) 등의 여신적 원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명의 중이 바위와 소나무로 변하게 되는데, 바위(소나무)는 불변을 표상하는 자연물⁴⁵⁾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결국 사냥과 육식은 남성적 원리를 지향하는 석가를 표상하는 것이고, 중, 바위(소나무), 부처는 여성적 원리를 지향하는 미륵을 표상한다고 하겠다. 더구나 민간신앙에서 바위로 조각한 미륵상이나 자연상태의 바위를 미륵불로 모시고 있는 정황을 고려하면, 바위를 미륵 자체 혹은 그 상징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된다.⁴⁶⁾ 이렇게 보면 두 중이 성인이 되겠다고 육식을 거부한 것은 무한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석가의 남신적 원리에 대한 거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월조정을 위해 나선 길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육식이라는 것은, 석가가 육식으로 상징되는 남신적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석가시대를 열고자

44) <송당본풀이>의 소천국은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고 고기를 생식하고, <세경본풀이>의 정수남은 소를 잡아먹는다. (조현설, 「제주 무속신화에 나타난 이중의 외부성과 젠더의 얽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2009, 468~469쪽.

45) 오세정(2005), 앞의 글, 364~365쪽.

46) 조현설(2013), 앞의 글, 25쪽. “강춘학본에서는 바위가 북두칠성이 되었고 정운학본에서는 미륵의 귀가 북두칠성이 되었다면, 바위와 미륵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존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바위를 돌미륵으로 모시는 민간신앙을 고려한다면 바위는 미륵과 동질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륵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삼천이나 되는 무리가 그와 뜻을 함께 했고, 동해 용왕 및 물고기도 그를 도와 여기에 동참했다. 그러나 두 명의 중은 석가의 육식을 거부하고 바위(소나무)로 표지되는 미륵의 여신적 원리를 고집했다. 남신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여성적 원리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원망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다. 이는 석가가 새 시대의 권위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자 석가는 남신 시대의 창세주로서 권위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창세주로서의 권위는 창조행위를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다.

그 사심이 고와서 적가임이 잡숫고 자그만치 짓뎛소. “아직 나무 한 상재와 나무 두 상재야 사슴 피기 먹어라” “서인님이요 우리 피기 아이 먹겠소, 서인질 하다가 부채님 되겠습니다.” 아이 먹으니 석가님이 그것도 다 당신이 잡숫고 지른 것으로 한번 물어 水中에다 뿌리시니 굵은 피기 자잔 피기 모든 피기 근본이 되어 건너갑니다. 또 한번 물어 옥항에다 뿌리시니 나는 짐승 청제비 구제비 두루미 날아나오, 또 한번 물어 팔만 삼천에 뿌리시니 궂는 짐승 뛰는 짐승 노루 사슴 범 녀대 돼 갔습니다.⁴⁷⁾

그래서 석가는 사슴고기 -두 종이 먹지 않아 남은 사슴고기- 를 먹은 후 다시 뺏어 각종 자연물을 창조한다. 사슴이 죽어 그 몸이 자연물로 화생한 것이어서 석가가 사슴을 이용하여 일종의 사체화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신화 수용자들이 이 대목에서 곤혹스러움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석가의 육식과 사슴의 사체화생이 매우 생소한 이야기여서 낯선 데다, 매우 상징적이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슴의 사체화생과 유사한 내용이 정운학본에도 나오는데 사체화생의

47) 강춘옥본 : 김현선(1994), 앞의 책, 256쪽.

주체가 미륵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운학본에서는 미륵이 죽어 그 몸이 자연물로 화생했다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늘로서 昇天을 했소 그적에야 미럭님에 얼굴일랑 해와 달이 이상 가고 미럭님에 귀는 가서 北斗七星 이상 가고 미럭님에 눈은 가서 밝은 셋 별 이상 가고 미럭님에 코는 가서 삼태성에 이상 가고 미럭님에 입은 가서 모에 담을 이상 가고 미럭님에 배는 가서 청 하늘에 이상 가고 미럭님에 手足일랑 이상 가고 미럭님에 일신일랑 지구뎡이 이상간다.⁴⁸⁾

미륵의 사체화생은 정운학본에만 나타나는 모티프로 강춘옥본의 사슴 사체화생과 연결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정운학본의 미륵과 강춘옥본의 사슴은 사체화생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존재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사슴은 미륵과 같은 여신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슴인간 녹족부인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녹족부인은 사슴발과 암사슴의 머리를 지닌 여인으로, 한 번에 아홉 또는 열두 명의 아들을 낳는다. 엄마를 닮아 사슴발을 가진 아들들은 녹족부인으로부터 분리된 후 적국의 장수가 되어 엄마의 나라를 침공하지만 녹족부인이 평정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⁴⁹⁾ 그런데 녹족부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열두 삼천 벌>은 사슴을 토렘으로 하는 시조신화적 특질을 담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열두 삼천 벌>에 나오는 녹족부인이 우주 및 만물을 창조하는 여신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녹녀 시조모(鹿女始祖母)설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권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사슴을 시조모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따라서 한국 창세신화에 등장하는 사슴도 이처럼

48) 김현선(1994), 앞의 책, 296~297쪽

49) 강상대, 「녹족부인 서사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반인반수’를 중심으로-」, 『동양학』 55, 2014, 10~11쪽.

50) 사슴이 양육한 사냥꾼의 아들이 만주족의 시조이기 때문에 사슴을 엄마라 부른다

폭넓게 전승되고 있는 사슴 시조모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슴이 미륵 그 자체, 혹은 미륵과 같은 계열의 창조여신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석가와 사슴이 처음 마주치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다.

한모로 두모로 네레모로 당도하니 길 아래서 사슴이 하나 울음을 쟁쟁 울며 길을 건너 가오. 야 저 사슴이느 길을 건너 가니 가는 것 그냥 둘 수 없다. 바람 안에서 육환장을 꺼내어 그 사슴이 건주더니 더졌더니 사슴이 는 맞지서고 절루 재되웠소. 이거 그냥 둘 수 없다, 아적나무 한 상자야 아적나무 두 상자야 야산에 장작이 심산에 쌍작이를 모다서 우물井채를 가레 놓고 나무 날기 피워놓고 사슴이를 고와라⁵¹⁾

석가가 서천국 가는 길목에서 만난 사슴은 쟁쟁 울면서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런데 석가는 사슴이 길을 건너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며 육환장을 던져 잡은 후 구워먹는다. 석가는 왜 이토록 무자비하게 사슴을 사냥하는지, 사슴은 왜 울면서 길을 건너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그런데 사슴이 곧 미륵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보면, 석가가 지나가는 사슴을 보고 그냥 둘 수 없다며 육환장을 던져 사냥하는 것을 이해할 여지가 생긴다. 석가는 세 차례나 내기를 반복하여 세상을 얻었는데, 미륵이 다시 나타났으니 그냥 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두 명이 육식을 거부하고 미륵적 지향을 고집한 직후였던 만큼, 미

는 만주족 시조설화 <흰 노루 엄마>, 순록을 뜻하는 알란 코아가 여성 시조신으로 등장하는 몽골 신화가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권도경, 「북한 지역 녹족부인 전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변동단계에 관한 연구」, 『비교한국학』 16: 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138~155쪽. 권도경, 「한(韓)·인(印) 녹녀설화(鹿女說話) 『비교연구-녹녀시조의 지역화(地域化) 된, 세계화(世界化) 된, 세방화(世方化) 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6, 2015, 201~202쪽.)

51) 강춘옥본 : 김현선(1994), 255~256쪽.

특을 표상하는 사슴에 대한 반감이 컸을 수 있다. 석가가 사슴을 향해 보이는 무자비한 폭력성은 바로 창조여신 미륵을 향한 것이었다 하겠다. 결국 사슴이 석가에게 살해당한 것은, 창조여신 미륵이 세계의 지배권을 쟁취하고자 했던 남신 석가에 의해 다시 희생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석가의 사슴 살해와 사체화생은, 석가가 창세주로서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창조여신을 살해하여 창조행위를 시도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석가의 창조행위는 창세신으로서의 권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창조여신의 몸을 빌려 자연물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개의 해와 달이 여전히 하늘에 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월조정을 위해 떠난 석가의 노정은 계속된다.

그런데 석가는 일월조정의 비밀을 안고 있는 서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 우리 신화에서 서천이라는 공간은 현실계도 죽음 후의 세계도 아닌 제3의 세계로, 인간의 수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꽃이 자라고 있는 곳이다. <이공본풀이>에서 서천은 옥황과 차사가 살고 있는 신의 공간이고, <바리공주>에서 서천은 저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공간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공간으로 죽지 않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만큼 서천국으로 가는 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물고기와 동지백이다. 물고기는 악수 삼천리를 건널 수 있도록 등을 빌려주어 서천국 노정의 첫 난관을 해결했다. 그리고 세시애기는 서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일월조정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서천국 노스님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고기와 세시애기는 모두 석가의 남신적 원리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물고기는 석가의 창조물이라는 점에서, 세시애기는 얼굴은 못생겼으나 ‘계교’가 뛰어난 존재라는 점이 누차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비해 동지백이는 서천국 가는 길도, 노스님의 문제를 풀 방법도 알려주지 않으며, 잘생겼지만 계교가 없는 존재로 형상화된다는 점

에서 비석가적 존재, 즉 미륵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석가의 화식에 대해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었던 것처럼, 석가의 일월조정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충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신화소에서 일월조정은 석가의 창조신적 권위와 석가시대의 완전한 성립을 알리는 표지로서 기능한다. 일월조정을 위해 떠난 서천국으로의 노정에서 석가는 사슴의 사체화생을 통해 자신의 창세신적 권위를 입증하고 일월조정에 성공함으로써 새 시대의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세시애기(동백애기), 바위로 변한 중(소나무)에게 신직을 부여함으로써 새 시대의 통치권자로서의 권위를 과시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서천국으로의 노정에서 석가는 여러 차례 여신적 원리를 지향하는 무리 - 두 명의 중, 동지백이 등 - 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창세신적 권위를 입증하기 위해 사슴을 사체화생했으나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앞선 내기에서 미륵의 무릎에 핀 꽃을 꺾어 자기 무릎에 꽂는 방식으로 세상을 차지했던 것처럼, 창조여신의 몸을 빌려야만 자연물을 창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여신들은 창조의 주체로서 인간세상과 만물을 창조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신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신 중심의 모계사회가 끝나고 남신 중심의 부계사회로 이행하면서, 창조여신은 새로 등장한 남신에게 살해되거나 스스로 사라지는 길을 걷게 된다. 약탈과 전쟁으로 점철된 거대 부족국가가 탄생하고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부계 중심사회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남신이 최고신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미륵이 석가에게 패하여 사라지고 석가가 등장하여 세계를 차지하는 내용의 한국 창세신화는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창조여신 미륵이 물러났어도 창조여신의 원리를 지향하고 원망하는 무리가 있었다. 창조여신 미륵은 그런 식으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신에서 남신으

로 창세의 주체가 이동했으나, 여신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신과 공존하면서 부계사회 남신중심의 시대를 기다린 것이다.

4. 맺음말

태초에 여신이 존재했고 인간은 최초의 신을 여성으로 표현하였다.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가 여성인 창세신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된다. 동아시아지역에서도 많은 여신들이 창세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창조여신이 없었던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이 글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창세신 미륵이 남신일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을 의심하고, 창조여신으로서의 미륵을 재발견해보고자 했다.

우선 창세신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을 밝히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했다. ‘인간세상 및 인간 창조’ 신화소, ‘미륵-석가 경쟁’ 신화소,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 등을 분석하여 미륵의 창조여신적 성격을 확인했다.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내기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미륵에 내재된 창조여신으로서의 자질을 추출하고, 거인창조여신 설문대 할망과의 비교를 통해 거인형상을 하고 천지를 분리하는 거인창조여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륵과 석가의 대결이 ‘사라지는 창조여신 대 부상하는 남신의 대결’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석가의 서천국 일월조정’ 신화소에 주목하여, 석가의 일월조정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다. 일월조정은 석가의 창조신적 권위와 석가시대의 완전한 성립을 알리는 표지로서 기능한다. 일월조정을 위해 떠난 서천국으로의 노정에서 석가는 사슴의 사체화생을 통해 자신의 창세신적 권위를 입증하고, 일월조정에 성공함으로써 새 시대의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창조여신 미륵이 물러났어도 창조여신의 원리를 지향하고 원망하는 무리

가 있었다. 창조여신 미륵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며 영향력을 발휘했다.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신에서 남신으로 창세의 주체가 이동했으나, 여신의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남신과 공존하면서 부계사회 남신중심의 시대를 기다린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상대, 「녹족부인 서사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 연구 -'반인반수'를 중심으로-, 『동양학』 55, 2014, 1~18쪽.
- 강진옥, 「마고할미 설화에 나타난 여성신 관념」, 『한국민속학』 25, 민속학회, 1993, 3~47쪽.
- 권도경, 「북한 지역 녹족부인 전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변동단계에 관한 연구」, 『비교한국학』 16: 1, 국제비교한국학회, 2008, 135~168쪽.
- 권도경, 「한(韓)·인(印) 녹녀설화(鹿女說話) 비교 연구-녹녀시조의 지역화(地域化) 된, 세계화(世界化) 된, 세방화(世方化) 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56, 2015, 185~221쪽.
- 권태호, 「여성거인설화의 자료 존재양상과 성격」, 『탐라문화』 37,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223~260쪽. 223~260쪽.
- 권태호, 「지형장조 거인설화의 성격과 본질」, 『탐라문화』 46,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4, 7~38쪽.
- 김재용·이종주, 『왜 우리 신화인가』, 동아시아, 2004, 1~363쪽.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쪽.
- 김현선, 「창세신화 '인세차지경쟁'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연구」, 『경기대 논문집』 32. 경기대학교 연구교류처. 1993, 1~34쪽.
- 김현선, 「한국과 유구의 창세신화 비교연구 - 미륵과 석가의 대결신화소」, 『고전문학연구』 21. 한국고전문학회. 2002, 257~305쪽.
- 곽진석, 「시베리아 축치족 창조신화의 양상과 구조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46, 2016, 379~394쪽.
- 노르브남, 『한국과 몽골의 창세신화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73쪽.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411쪽.
- 박종성, 「동아시아 창세신화 연구-만주, 몽골, 한국 창세신화의 양상과 변천」, 『구비문학연구』 12, 한국구비문학회, 2001, 119~165쪽.
- 박종성, 「중, 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541~572쪽.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2, 1~579쪽.

- 서유원, 「중국 소수민족의 주요 創世神話에 보이는 천지형상과 補天神話의 연구」, 『중국어문논역총간』 39, 2016, 37~63쪽.
- 송정화, 『중국 여신 연구』, 민음사, 2007, 1~334쪽.
- 오세정, 「〈창세가〉의 원형적 상상력의 구조와 의미체계」, 『구비문학연구』 20, 2005, 347~384쪽.
- 유정민, 『꽃피우기 경쟁 신화소의 동아시아적 분포와 변이』,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1~74쪽.
- 이지영, 「창세시조신화의 전승변이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18, 서울대 국문과, 1997, 69~91쪽.
- 장영란, 『위대한 어머니 여신-사라진 여신들의 역사』, 살림출판사, 2003, 1~94쪽.
- 체첸소드눔, 『몽골 민간 신화』, 대원사, 2001, 1~176쪽.
- 진성기, 『신화와 전설』, 제주민속연구소, 2001, 1~384쪽.
- 『한국구비문학대계9-2(제주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747쪽.
-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1~269쪽.

■ Abstract

**The characteristic on Mitreya of the
<Chansega> and the meaning on the
competition of 'Mitrrya-Budda'**

Shim, Jae-suk
Korea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 on Mitreya of the Creation Myth and the meaning on the competition of 'Mitrrya-Budda'. A case in which the creation goddess created the world and human beings can be found in many countries. Then was there a creation goddess in Korea?

First This paper describes the nature of Mitrrya as creation Goddess. I analyzed the meaning of bet was made in a symbolic way and identified the qualities of the goddess. Also I found Giant creation goddess from Mitrrya compared to the Giant creation goddess, Seolmundae-Halmang.

Based on these analyzes, I proves that the confrontation between Maitreya and Buddha appears as 'the disappearing goddess VS the rising gods'. Especially I focused on 'Buddha's SeoCheon-Gug' mythmes, and analyzed what the Buddha's 'SeoCheon-Gug' mythmes means. It serves as a sign to announce the creation of the sacred authority of the Buddha and the complete establishment of the Buddha's age. On a trip to the SeoCheon-Gug, Buddha proves his

divine authority through deer's SaCheHwaSaeng(Sun & the moon be settled). Also he secured his position as a ruler of the new age by being successful in Il-WolJoJeong. However, even if the goddess Maitreya had withdrawn, there was a group of people who were aiming at the principle of the goddess. The goddess Maitreya did not disappear and exerted her influence. While the subject of the creation moved from goddess to a male deity in the transition from maternal society to parental society, the influence of the goddess did not disappear but it coexisted with a male deity.

Key words : Creation Myth, Creation Goddess, Maitreya, Budd, Sakya, God, Body Metamorphosis, Sun & the moon be settled, Deer, Seolmundae-Halmang.

투고완료일 : 2018. 5. 27. 심사완료일 : 2018. 6. 12. 게재확정일 : 2018. 6. 13.

